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 시작은 겸손하고 준수하게 시작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만해짐으로써 실패한 왕이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 17장에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소위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위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러한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싸움을 돋우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고 누구 하나 앞장서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찾아 갔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 한번 없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던 용감한 목자였습니다.

이제 이 어린 소년 목자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갑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매끄러운 돌 다섯 개와 물매뿐 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어린 목동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칼과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17:45)." 상식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다고 해도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상대로 다윗과 같은 어린 목동이 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결말을 예상 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뻔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와 같은 도전은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싸움이 자신이 얼마나 무정을 하고 훈련을 받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다윗은 자신과 맞서는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 군사인지도 전혀 고려 사

항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오늘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17:46). 그리고는 아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17:46b-47)"

우리들이 모두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에 물매를 던져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 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였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거둔 다윗의 승리가 다윗 자신에게는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대항하여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에 대한 칭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의 환영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불쾌히 여기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분노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또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울 자신도 어쩌지 못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 그를 죽이는 공을 세운 다윗에 대한 보답은커녕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주목할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시대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암울한 시대요 그래서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린 시절 즉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께 충실한 믿음의 모습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울의 시대도 역시 사사기의 시대나 엘리의 시대와 같은 영적인 혼돈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의 제도는 생겨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상태

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가 아직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다윗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는 달리 다윗에게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분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때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잇는 왕으로 삼을 때의 상황을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삼상10:6). 또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도 다윗 역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 되었습니다(삼상16:13).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즉 두 사람이 왕이 되는 처음 시작은 대동소이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두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 사람의 나중 모습을 이렇게 확연히 다르게 결정지은 것입니까? 똑같이 기름부음을 받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도 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울의 경우에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다윗이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을 "잘난 척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의 겸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서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대하7:14).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들은 그 분의 피조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 분의 백성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신분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가 골리앗을 넘어 뜨려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대표적인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빌2:6-8).

이와 같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나 자신의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 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겸손이라는 말에 대해 오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행하였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복종하고 그 분만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지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는 겸손과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